

○ 각 부문별 수상업체 및 수상자는 다음과 같다.

(주)케드콤은 「창의개발·계획실천·인화단결」이라는 사훈아래 서울 마포에서 1976년 2월에 설립하였으며 현재 자본금 157억원의 중소상장업체로서 종업원이 일치단결하여 IMF 시대의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고자 혼연일체가 되어 신기술 개발 및 수출증대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구슬땀을 아끼지 않고 있다.

케드콤은 또 99% 이상이 수출이며 1995년도 연간 매출이 210억원이던 것이 1996년도에는 320억원, 1997년도에는 전년대비 65% 신장한 530억원, '98년 반기에는 전

전자산업대상(대상)

(주)케드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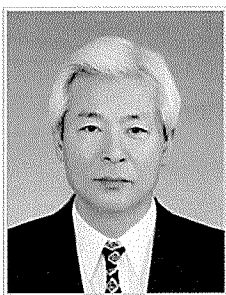
년대비 82% 신장한 370억원의 수출을 하였으며 해마다 눈부신 외형성장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해 5천만불 수출탑 수상에 이어 금년에는 수출실적 1억불을 사업계획으로 수립하여 우리나라 무역수지 개선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어려운 IMF 시대를 벗어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자 수출 증대만이 살길이라는 신념으로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 회사의 수출전력은 수출 신시장 개척에 있으며 대부분의 수출은 유럽, 북미,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미국, 중동 등 40여개국이며 주력품목은 위성방송수신기, 전동타자기, 앰프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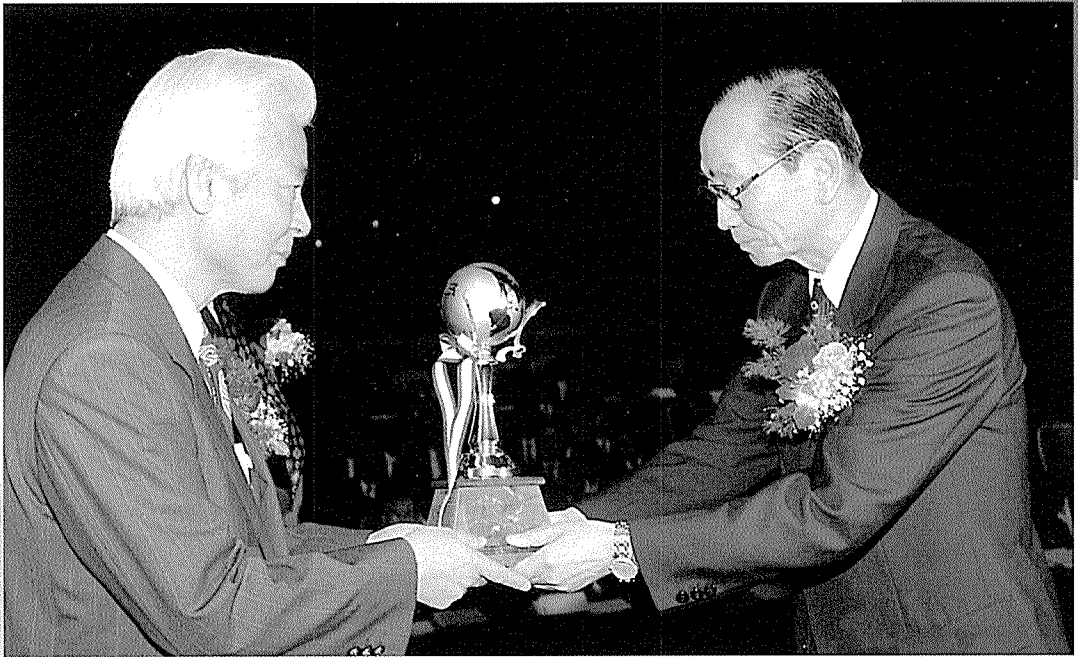
'98년에는 디지털위성방송수신기(STB)를 초기에 개발하여 수출량을 계속 늘리고 있다.

여기에 순이익 증가율도 '96년 대비 '97년에는 130% 증가한 17억 정도이며 '98년 반기에는 전년반기 대비 270% 증가한 20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노사문화가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노사분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항상 근로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문제점을 서로 상의하여 개선하는 등 능동적인 자세로 노사문제를 해결하여 현재 노조없는 회사를 유지해 오고 있다.



(주)케드콤 대표이사 김영수



케드콤은 또 기술력 없는 회사, 변화하지 않는 기업은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김영수 대표이사의 신념아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개발비를 투자하였으며 1987년에는 안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고 1992년 8월에는 서울에 서울부설연구소를 추가로 설립하여 현재 기술개발 인력만 해도 30여명에 이르고 있다.

케드콤은 국내 최초로 전자기기 제조시 기존의 납땜접속 방식에서 탈피하여 CONNECTOR 접속방식을 도입한 WIRING HARNESS를 제조 공급하였으며 그외에는 위성방송수신기, 전동타자기, 방송용 앰프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STB)를 개발하여 디지털 위성시대에 대응하고자 수출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케드콤은 사업의 다각화를 위하여 1997년에 본격적인 위성방송시대를 대비하여 연구개발 전문 회사인 한국IST를 인수하였으며 지난해 상호를 한국전장(주)에서 (주)케드콤으로 변경하여 한국IST와 공동으로 위성통신 사업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야심으로 현재 위성방송수신기, 디지털 위성방송수신기(셋톱박스), 위성방송용 MPEG2 인코더와 제한수신시스템(암호해독장치)등의 신기술을 개발하여 수출 전략을 강구하고 있다.